‘남도 문화’ 전파…굿음악 되살려 세계화 나선다

국립남도국악원 주요 사업계획 발표

소멸된 굿 연구·축제화, 상장례 유산 발굴·확장
‘대학국악제’ 신설, 어린이 국악극·창극 첫 선도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사라져가는 희귀 굿을 복원, 소멸된 굿을 연구·축제화해 굿음악축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굿 뿐만아니라 사라져 가는 소리를 발굴·기록해 전승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국악 이론 및 실기 전공 자 간 교류를 위해 ‘대학국악제’를 새롭게 열고, 야외 공연장인 달빛마당 자리에 다목적 실내공연장 건립에 착수해 남도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최근 주요 사업설명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10년 시작해 진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과 해외의 무속음악을 무대에 올려 굿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온 ‘굿음악축제’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굿을 조명해온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진도 및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행이 중단된 옛날 굿을 복원해 축제 한가운데로 끌어들인다. 소멸된 굿에 대한 발굴·복원, 학술회의 등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국악원이 해마다 선보여온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는 오는 3월 재개하는 가운데 불교음악과 지역별 상여소리 및 농여 한마당 등 주제공연, 명인·명창전, 지역 우수단체 초청, 신진예술가 무대로 구성, 토속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연주는 국악연주단과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준비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총 34회 공연을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국악 실기 전공 대학생의 창작 역량을 발굴·활성화 하기 위한 ‘대학 국악제’는 오는 6월께 첫선을 보인다. 기존 국악학 기초연구 활성화지원사업인 ‘대학생 연합 세미나’와 연계해 이론·실기 전공자 간 교류 및 협업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다. 올해는 호남권과 영남권 대학 국악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담은 무대를 준비한다.

국악원은 올해 어린이를 위한 국악극과 창극을 새롭게 제작해 선보인다. 백두산 무당 호랑이 쿵이의 진도 노정기를 그린 국악극 ‘무당호랑이, 쿵이의 대모험’은 오는 5월 어린이날에, 진도 옛 오일장의 아련한 추억을 에피소드화한 창극 ‘최고의 장사꿈을 찾아라’는 추석 시즌에 각각 관객들을 만난다.

진악당 내부 공사로 지난해 실험적으로 선보였던 ‘해설이 있는 풍류 음악회’는 관객들 호응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격주 수요일 총 4회 이뤄진다. 국악과 인문학을 접목한 렉처형 토크 콘서트로 민요와 굿, 전통춤, 국악기 등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함께 접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진도 예인과 민속학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 총서를 발간한 국악원은 올해 진도 민속예술 발굴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정호 전 진도문화원장을 조명한다. 이와 함께 국악원은 다목적 실내공연장 마련에 착수한다. 실내 공연장인 진악당 외에 야외공연장 뿐이어서 소규모 공연이나 모임시 실내에서 하기 어려움이 따라 야외마당인 달빛마당과 별빛마당 중 달빛마당 자리에 실내 공연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남 사회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맞춤형 국악공연 및 체험, 전국 지역 공연장 순회,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정경 원장은 “그동안 국악과 국악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함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국악원에서 선보이는 풍성한 공연과 유익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말의 기운을 담아 더 힘차게 남도 문화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KPop Demon Hunters Derpy 2025’

‘NewYork sister 2025’

인물·꽃·동물…재현 대신 시각언어로 해석

양시영 초대전, 28일까지 우제길미술관…“세계 호출하며 감각 확장”

발달장애(자폐 스펙트럼)를 지닌 작가로, 언어보다 시각적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해온 미술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우제길미술관은 어린 시절부터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그림을 통해 자신이 보고 느낀 세계를 꾸준히 시각화해온 양시영 작가를 초대해 전시를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Hello, world!’라는 타이틀로 연다고 5일 밝혔다.

전시 타이틀인 ‘Hello, world!’는 코딩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출력되는 문장으로, 세계와의 첫 접속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이 문장을 빌려, 작가가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세계에 말을 거는 방식을 암시한다.

작가의 작업은 인물과 꽃, 동물, 사물 등 일상에서 마주한 대상들을 서사나 상징으로 환원하지 않고, 화면 안에 동등한 감각 단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언어적 개념보다 이미지와 감각이 우선하는 그의 인식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작가에게 회화는 설명을 위한 재현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에 말을 거는 시각 언어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꽃은 배경이 되지 않고, 인물은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표정과 동작 역시 특정한 감정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런 화면 구성은 세계를 언어로 정리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각이 그대로 축적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작가의 태도와 연결된다. 그의 작업에서 감각은 해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화적 형식으로 치환되며, 그 결과 ‘세계’와 ‘언어’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한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작가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회화로 구성해 온 방식을 하나의 구조로 제시하는 자리이자, ‘무엇을 그렸는가’보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작가의 화면 속 인물과 사물은 서사적 설명이나 위계 없이 병치되며, 색과 선, 반복되는 형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구성된다.

전시에는 ‘뉴욕누나’를 비롯해 ‘Lovers’, ‘케데헌 호랑이 더피’ 등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 속 인물의 얼굴은 과장되거나 단순화돼 있지만 왜곡되지 않으며, 관람자는 명확한 의미를 읽기보다 화면에 축적된 감각의 밀도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과 관람자가 접속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우제길미술관 김차순 관장은 “작가의 회화는 결핍을 보완하는 표현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며 “이번 전시가 작가의 현재와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기획자인 박경식 부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에서 형성된 하나의 독자적인 시각 언어가 동시대 회화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중심을 향한 증명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세계를 호출하며, 기존의 시각 체계가 놓쳐온 감각의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과학의 눈으로 본 일상 풍경 재발견

이한결 교양서 ‘이런 과학 처음이야’…생각하는 법 제시

연구실 안의 과학을 벗어나 일상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 실제로 작동하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초점을 통해 과학 전반을 조망한 교양과학서가 나왔다.

광주 출생 젊은 물리학자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한결씨가 펴낸 ‘이런 과학 처음이야’(바다출판사 刊)가 그것으로, 과학이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 교양과학서는 과학적 사고로 다시 만나는 세계 또는 일상의 재미를 발견하는 물리학자의 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싶다. 그저 딱딱하고 지루해 졸릴 것 같은 과학의 이미지를 탈피, 생활 속에서 흥미로운 과학의 현실이나 단서를 탐색한다. 그저 하찮게 봤던 일상에 수많은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깨쳐 가는 과정을 읽을 수 있어 재미가 작지 않다.

저자는 과학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부터 우리의 행동, 선택, 감정까지 그 안에 숨은 비밀을 속삭여주는 친절한 친구라는 시각이다.

특히 반도체 연구원이자 응집물질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 박사인 저자가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모든 것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친절히 때로는 꼼꼼하게 안내한다. 탈모부터 도박과 주식, 힙스터와 조상의 비밀을 지나 배우자 선택과 기후 변화까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과학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

이번 과학교양서는 ‘요즘 것들의 물리학’을 비롯해 ‘과학의 오지랖에는 한계가 없다’ 등 제3부로 구성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해남 출신 민족시인 김남주 시정신 기린다

‘32주기 추모식’ 내일 광주 망월묘역

유신과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조국 통일을 노래했던 전남 해남 출생 민족시인 고(故) 김남주 시인(1946~1994)의 삶과 시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마련된다.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윤)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는 ‘제32주기 김남주 추모식’을 7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주열사묘역에서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정양주 시인(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추모식은 유선규 광주민청학련동지회 회장, 오미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김미승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추모사가 잇따라 이뤄지는 가운데 양기창 시인의 추모시 낭독과 시화풍정 담소 오영묵 가수의 추모 노래가 펼쳐진다.

또 김경윤 김남주기념사업회장의 기념사업 경과 보고에 이어 시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뤄지며, 유족과 참여인사들의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